

2021년 8월 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출진흥과 과 장 김재형(044-201-2171), 사무관 이인애(2169) / 제공일: 8월 4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입 지원

- 해외 유명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 국가관을 통해 우리 농식품  
수출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-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입 기반 마련
  -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쇼피(Shopee), 대만 모모(Momo)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 국가관 개설 완료(~7월말)
    - 온라인몰 입점부터 물류, 판촉·홍보, 판매·정산까지 전 과정 지원
  - 연내 한국식품관을 추가 개설하는 등 한국 농식품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온라인·모바일로 변화하는 글로벌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농식품 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말레이시아·필리핀 쇼피(7.30. 개설) 및 대만 모모(7.5. 개설)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 내 '한국식품 국가관'을 추가 개설하고, 한국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\* 세계 온라인 식료품 시장규모는 '20년 510억불, '23년 1,170억불 전망

\* 쇼피(Shopee) : 동남아 6개국 등에 거점, 동남아 모바일 전자상거래 1위, '20년 매출액 354억달러(약 40조원), 다운로드 2억회, 700만 이상의 판매자와 1만개 브랜드 입점

\* 모모샵(Momo) : 대만 매출 1위 온라인몰, '20년 식품매출규모 NTD67.2억불(약 2,690억)

-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, 언어,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온라인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, 작년 11월 중국 최대 온라인몰인 티몰(T-Mall)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.
- 이번에 대만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모모(Momo) 및 동남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(Shopee) 말레이시아·필리핀에 각각 한국식품관 개설을 완료하면서 신남방 지역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게 되었다.
- 농식품부는 한국식품관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소비 시즌별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, SNS 유명 인플루언서(누리 소통망 영향력자)를 활용하여 신상품 테스트, 소비자 체험 이벤트, 생방송 판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.
- 쇼피 한국관은 온라인 직수출 사업을 통해 기선정된 50개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통관부터 현지 배송까지 All-in-One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, 한국식품관 내 판매현황관리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,
- 모모 한국관은 대만 온라인몰 최초 한국 신선농산물(포도, 배, 사과 등 가정용·선물용 신선농산물) 입점을 추진하고, 대표 쇼핑 축제인 중원절(8월), 광군절(11월) 계기 공동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기반 한국 농식품 수출 판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-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일본 등 한국농식품 수요가 높은 국가에 한국식품관을 추가 개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마케팅 성장 지속 추세 속에서 한국식품관이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-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“한국식품 국가관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수요에 대응하고, 해외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마케팅을 추진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, 한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